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4. 9.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몰디브, 연승어업 금지를 재확인함 3
2. 기후변화, 일본의 어획량에 심각한 영향 끼쳐 4
3. 美, IUU 어업 혐의 외국 선박 항구 이용 권한 거부 5
4. 전채된 참치 산업, 전세계적으로 104억 달러 규모 6
5. ChatGPT가 답한 스페인 최대 수산기업 10개 7
6. 중국, 세계 3위 참치 수출국으로 등극 9

- 몰디브 정부는 환경 보호 단체들의 반발 이후, 롱라인 어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2019년 롱라인 어업 허가 금지를 재확인함
- 황다랑어 어업인 연합, 몰디브 해양 연합, Only One이 공동으로 마련한 청원이 30,000건 이상의 서명을 받으며 이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번 결정을 지역 사회 주도적 옹호 활동의 승리로 환영하며, 풀 앤 라인 어업과 같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방법을 계속 사용할 것을 촉구했음
 - 해양 보호 전문가인 켈럼 로버츠 교수는 몰디브의 전통적인 일대일 참치 어업이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어업임을 강조했다
 - 이번 금지는 몰디브의 중요한 관광 산업, 특히 스쿠버 다이빙을 보호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특히 상어에 대한 혼획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함

※ 출처: Seafoodsource¹⁾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maldives-confirms-ban-on-longline-fishing-shortly-after-considering-whether-to-reopen-the-practice>(²⁴년 09월 30일 검색)

- 일본의 주요 해산물인 오징어와 콩치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기후 변화가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23년 콩치 어획량은 2022년에 비해 36% 증가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해수 온도 변화로 콩치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밖으로 이동하고 있음
 - 오징어 어획량도 2024년에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위 노력당 어획량 (CPUE)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따뜻해진 바닷물로 인해 복어와 콩치 같은 한류종은 북쪽으로 이동해 일본의 EEZ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고등어와 방어 같은 난류종은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일본 수산청은 2018년 수산 백서에서 어획량 감소가 기후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선언했으며, 이번 어획량 감소는 영구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출처: SeafoodSource²⁾

²⁾<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limate-change-heavily-affecting-fish-stocks-in-japan-resulting-in-historically-low-catch-totals>(²⁴년 07월 22일 검색)

- 2024년 10월 10일부터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IUU(불법, 미보고, 비규제) 어업에 연루된 외국 상업 어선의 미국 항구 접근을 금지함
 - NOAA 수산부는 17개국 어선의 항구 이용 권한을 철회함
 - 해당 조치는 High Seas Driftnet Fishing Moratorium Protection Act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IUU 어업이나 보호 해양 자원 및 상어에 대한 부수어획 활동을 하는 국가를 식별하도록 함
 - NOAA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식별한 국가와 2년간 협의하며, 협의 실패 시 부정 평가 인증을 발급하고 항구 접근을 거부함
 - 2023년 보고서에서 멕시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17개국이 부정적 평가를 받음
 - 중국의 연승 어선, 러시아의 남극 이빨고기 어선, 멕시코의 걸그물 어선 등이 항구 접근 금지를 받음
 - 알제리, 바베이도스, 코트디부아르 등 14개국의 어선들도 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 규제 하에 해양 거북 부수어획 감소 프로그램 미이행으로 항구 접근이 금지됨
 - 국제 NGO Oceana는 NOAA가 해당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수산물 수입 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 필요성 주장
 - NOAA는 해당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긍정적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항구 접근 권한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출처: Seafoodsource ³⁾

3)<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noaa-denies-port-privileges-to-foreign-vessels-accused-of-iuu-fishing>

□ 국제 NGO인 PEW Charitable Trusts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RFMO가 관리하는 어업 내 참치 전재는 전 세계 참치 판매의 약 25% 차지, 2018년 기준, 140만톤(MT)의 참치가 전재*되었으며, 총 가치는 약 104억 달러(약 93억 유로)에 달함

* "전재"는 해상 또는 항구에서 어획물을 어선에서 운반선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획물을 효율적으로 가공 공장과 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

-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어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와 같은 세계 5대 참치 지역 수산 관리 기구(RFMO)가 관리하는 전재된 어획물의 양과 그 기간 동안 전재된 참치의 가치를 추정하였음
- 전재된 어획물 중 가다랑어와 황다랑어가 전체 전재량의 약 75%를 차지
- 전재 활동의 69%는 태평양에서 발생하며, 이 중 많은 부분이 WCPFC 관할 수역에서 이루어짐
- 선망선은 주로 항구에서 전재를 통해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기며, 2018년 전체 전재량의 84%를 차지
- 연승선은 주로 해상에서 전재를 진행하며, 고부가가치 참치를 빠르게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전재가 활용
- 전재 관리 개선을 위한 권장 사항:
 - **보고:** 전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여 관리 당국이 어획 정보를 확인하고 불일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데이터 공유:** RFMO와 국가 간 전재 데이터 공유 절차를 확립하고, 인접한 RFMO 간에도 데이터 공유 협정을 고려
 - **모니터링:** 모든 전재활동에 대해 인간 또는 전자 옵서버를 100% 배치하여 전재의 합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함

※ 출처: PEW Charitable Trusts⁴⁾

4)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issue-briefs/2024/09/transshipment-plays-a-major-role-in-the-global-tuna-industry>

- ChatGPT에게 스페인에서 가장 큰 수산기업 10곳을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이 답했음:

<p>(1) 누에바 페스카노바 그룹: 글로벌 수산물 업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인 페스카노바는 갈리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음. 수산물 어업, 양식, 가공 및 유통 사업을 하고 있음. 이 회사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p>	
<p>(2) Grupo Profand: 비고에 본사를 둔 Profand는 어업 및 가공 부문의 주요 회사임. 이 회사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전문으로 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수산물 제품을 제공함.</p>	
<p>(3) 판디코스타: 이 회사는 다양한 냉동 및 냉장 수산물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것으로 유명함. 대구와 오징어 같은 종에 주력하고 있으며 갈리시아 모아나에 본사를 두고 있음.</p>	
<p>(4) 유니온 마틴: 라스팔마스에 본사를 둔 유니온 마틴은 생선 및 수산물 제품의 포획, 가공 및 마케팅을 전문으로 함. 카나리아 제도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p>	
<p>(5) Scanfisk: 1994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스페인과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에 관여하고 있음. 품질 표준으로 유명함.</p>	
<p>(6) 사나마르: 말라가에 위치한 사나마르는 다양한 수산물 제품으로 유명함. 이 회사는 어업과 가공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p>	

<p>(7) Maresmar: 바르셀로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Maresmar는 유럽 전역에 신선 및 냉동 수산물을 전문으로 유통함. 물류 역량으로 유명함.</p>	
<p>(8) PESFASA: 카스텔론에 본사를 둔 PESFASA는 냉동 수산물 제품으로 유명한 스페인 수산물 업계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기업임.</p>	
<p>(9) 프린사: 유럽 최대 통조림 수산물 생산업체 중 하나인 프린사는 갈리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참치, 정어리 등 고품질 통조림 생선 제품으로 유명함.</p>	
<p>(10) 칼라데로(프로판드 그룹): 신선 생선 제품의 주요 공급업체인 칼라데로는 주로 스페인 내 소매 유통을 위해 고품질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p>	

※ 출처: www.seafood.media⁵⁾

5)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1895&ndb=1> (9월 19일 기사)

- 2024년 8월 29일 상하이에서 국제 참치 산업 포럼이 개최되었음. 포럼은 냉동식품 협회, 중국 원양어업협회, 상하이 국제수산박람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음. 이 회의에는 업계 리더, 권위 있는 전문가 등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글로벌 참치 산업의 새로운 발전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의 가장 포괄적인 산업 발전 역학 및 새로운 무역 과제를 논의했음.
- 상하이 해양대학교의 쉬리우시옹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참치산업의 현황과 지속 가능한 개발 과제"라는 제목으로 2023년 중국의 총 참치 어획량이 39만 5,000톤에 달하고, 49개의 어업 회사와 총 486척의 어선이 조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선박 수는 498척에서 511척 사이였으며, 여기에는 14~16척의 선망 어선과 483~495척의 연승 어선이 포함됨. 그러나 업계는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도전들에 직면해 있음. 주요 어려움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노동력 확보, 국제 시장 수요 부진, 연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 비용 상승 등이 있음.
- 해양관리협의회(MSC)의 글로벌 참치 프로젝트 책임자인 빌 홀든은 "글로벌 참치 산업의 현황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음. 그는 현재 중국이 태국과 에콰도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참치 제품 수출국이라고 소개했음. 2022년 전 세계 참치 제품 수출 시장에서 중국은 7%, 태국은 29%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에콰도르는 15%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음. 홀든은 태국과 스페인이 중국 참치 수출의 주요 시장이며, 이 중 태국에 25%, 스페인에 17%가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중국 통조림 산업 협회 회장인 리우 유관은 "국내외 참치 통조림 시장 발전: 시대에 발 맞추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음. 리우는 연설에서 중국 참치 통조림 산업의 주요 발전을 강조했다. 2015년 시장 가치는 5억 7,700만 위안(약 7,110만 달러)으로 2019년 5억 6,500만 위안에 달했을 때까지 빠른

성장을 경험했음.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9년 이후 시장 규모가 5,800만 위안 증가하는 데 그쳤음. 현재 시장 규모는 약 6억 2,300만 위안(8,700만 달러)으로 추정됨.

- 이러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리우는 특히 건강 의식의 증가에 힘입어 참치 통조림이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정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대도시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그는 내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출 부문의 상당한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음.

출처: www.seafood.media⁶⁾

6)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1851&ndb=1> (9월 16일 기사)